네 마음을 네가 발견해서 깨달아서 자유스럽게 살라!

칠석과 백중의 둘 아닌 도리

질문 칠석 관련 큰스님의 법문 중에서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조상님들의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법문을 보면서 단지 정성금을 올리고 등을 밝히기만 하면 조상님이 좋아지실 거라는 막연한 저의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내 마음 밝히는 일이 바로 조상님들이 더불어 벗어나는 길임을 진실하게 믿고 이 마음공부의 길에서 완성을 이루어야겠다는 발원을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칠석과 백중의 둘 아닌 도리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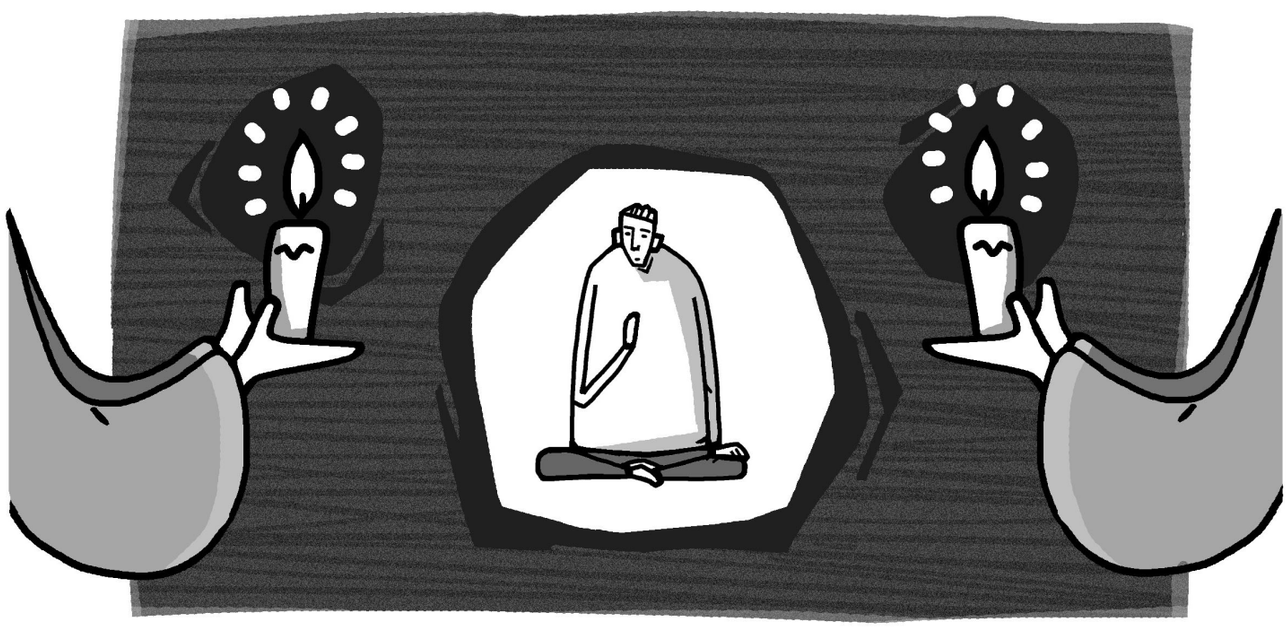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답변 간단히 표현을 하자면, 서천궁은 바로 내 마음 깊은 속을 말합니다. 잠재의식으로서의 깊이 들어간 그 속을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불성 자리, 움죽거리지 않는 거기까지 말입니다. 그게 서천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내서 움죽거리는 이 세상은 예를 들어서 동천의 아촉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내는 겁니다. 요렇게 간편하게 우리가 그 뜻을 알려면, 마음 깊은 속이 서천궁이다 한다면 바로 마음을 내는 것은 우리가 불을 켜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그걸 인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불을 켜기까지 재료를 다 해서 자리가 딱 잡혀야, 한생각을 내는 게 바로 불을 그어 대는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라이터가 준비가 돼야 여러분이 탁 불을 켤 수 있고 한 찰나에 불을 댕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대비가 되지 않는다면 한 찰나에 불을 댕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이 촛대라고 본다면 바로 불을 댕기는 그 생각은, 우리가 촛대를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 주인공 자체를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 불을 탁 켤 때에 불이 확 가서 붙는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이 칠석과 백중은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백중이 서천궁이라 한다면 칠석은 동천에 불을 댕기는, 즉 해가 뜨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하자면 인생이 태어남을 말하고 인생이 죽어 감을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리를 알면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대로 우리가 여여함을 배우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천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천에 불을 켤 수가 있는, 인등을 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불을 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나올 때는 바로 불을 켜 들고 나올 수 있게끔 돼 있고, 또 죽어갈 때는 바로 그 초가 완전히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 초를 장만하고 마련을 하기 위해서 서천궁으로 가는 거고 또는 불을 켜기 위해서 동천으로 온다 이겁니다. 이렇다면 불을 켜기 위해서 오는 것은 칠석이고, 불을 켜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바로 서천궁, 백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 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서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제자리를 굳건히 다지지 못한 채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에 조상도 그렇고 여러분을 다 한마음으로 공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백중이 생긴 것이고 칠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칠석에는 그렇게 공덕을 한마음으로 모아서 백중에 정성을 들일 수 있게끔 우리가 불을 켜고 자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칠석이 부모 조상들에게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죽은 조상의 마음이나 산 조상의 마음이나 둘이 아닙니다. 몸만 없어졌을 뿐이지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차원도 그대로죠. 산 사람들도 그 마음의 차원은 그대로요, 마음을 내기 이전도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것은 불을 켜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초를 만들어 놓고 성냥불을 그어 댈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불을 댕기는 것도 한순간에 불을 댕길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칠석입니다. 그 불을 댕길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것은 지금 불을, 우리가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불을 아무 때라도, 생각을 한데 합쳐서 불을, 아무 때라도 생각을 하면 그냥 불이 댕겨지도록 하기 위한 공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런 공부를 하신다면 백중에도 조상들의 마음이나 산 사람의 마음이나 둘이 아니어서 그렇게 공 도리를 완전히 한마음으로서 이끌어 나가면서 중심을 딱 세우고 촛대를 세우고 불을 켜게끔 딱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마음의 자가발전소에 불을 댕기는, 한생각에 그대로 불이 댕겨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칠석에는 산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댕기고 백중에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대로 그 바탕을 세우고 중심을 세워서 주장자를 세워 놓으면, 동천에 와서 금방 불을 켤 수가 있으니까, 살아나올 때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상을 위해서 하는 것도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도 되고 부모나 자식, 아내나 남편, 친지 형제들을 다 위해서 한마음으로서 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저 한생각에 그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오신 그 자체, 또는 가지고 돌아가고 가지고 괴로움을 받고 이러는 그 재료를 가지고 모든 걸 여러분의 한생각에, 인등의 불에 한생각이면 모든 것이 다 태워져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실험하기 위해서도 칠석과 백중을 지내면서, 재료를 가져오신 것을 실험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성냥을 탁 그어 대서 불이 일어나서 그 모두를 무너뜨리고 태워 버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살아나가는 가정과 앞길에 환하게 길이 인도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칠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산 사람들의 마음의 인등을 켜는 날입니다. 우리가 백중에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 인등을 켜기 때문에, 자식들이 인등을 켜기 때문에 그 인등의 불이 백중에 촛대를 해 놓은 데 가서 불이 붙으면 영가님들께서 좋은 데로 천도가 되기 때문에 백중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백중 날 여러분이 촛불에 댕길 수 있는 불을 켜서 영가님들의 마음에까지 불이 들어올 수 있어야만 영가 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중심 촛대에 불을 켜지 못한다면 어떻게 조상님들의 촛대의 불이 켜지겠습니까? 이건 자동적으로 이어진, 연결된 둘 아닌 도리입니다. 이 도리는 칠석과 백중과 연결이 돼 있는 둘이 아닌 그런 뜻입니다. 그걸 가깝게 본다면 자기 깊숙한 마음 내기 이전과 또는 깊숙한 마음속에서 촛대에 불이 댕겨지는 것과 현실의 불이 댕겨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이 되고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다 밝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죠. 지나가다 지나오다가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의 불을 밝히세요.

관(觀)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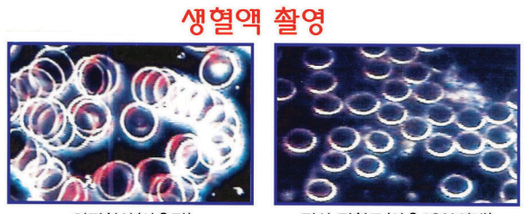
질문 저는 소원을 비는 것과 한마음 관(觀)하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 사찰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원을 할 때 원하는 게 한마음을 관해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소견으로 볼 때에. 그래서 안 될 때는 그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싶고, 요즈음 절에 가면 입시철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또 소원을 빕니다. 스님들께서 시켜서 하는데, 그 기도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안 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본래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은 그게 아닙니다. 상대를 보고 해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형상과 내 형상이 둘이 아니요,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요, 그 뜻도 또한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처님이 내 몸과 둘이 아니고 마음이 둘이 아니라면 해 달라고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네 마음을 먼저 알아야 내 마음을 알 수 있느니라. 그럼으로써 내 마음과 네 마음이 둘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는 "만약에 네 마음과 내 마음이 전깃줄이라면 전깃줄과 전깃줄이 한데 합치면 불이 들어올 뿐이지 거기서 '해 달라, 안 해 달라'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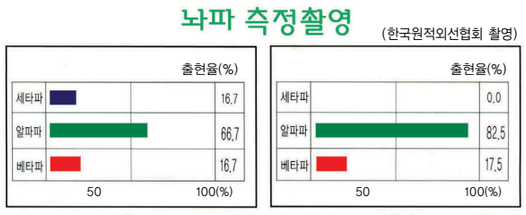
☞ A18면으로 계속

BLOOD MATE® 비누 한 번으로 혈액 건강! 세포 건강!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한국원적외선협회 촬영)



사용전 사용후

알파파 (8-14HZ) 명상 같은 편안한 상태에서 나타나며 스트레스 해소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의식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6개월 후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CS137(세슘)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3% 탈취 80% 음이온 146cc 원적외선 방사 98.7%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효과 : 어깨결림, 허리통증 등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7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복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최초로 개발된 일본정부의 예산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항균 93%가 아토피,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80%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지구상의 전 인류는 양치 후 뱉어내고, 구강 건강에 별도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

ORAL MATE로 양치 후 뱉지않고 먹었는데 30년 묶은 치질, 혈변이 사라졌다!!

ORAL MATE를 개발한 41년생 남자인 본인은 ORAL MATE로 양치후 뱉지 않고 삼키면 구강건강(모든 잇몸질환) 은 기본이고 93%의 항균력과 80%의 탈취력이 위와 장을 청소하므로 배탈, 설사, 변비 한번없었고 속이 거북할 때나 과음시에는 소화제나 술 깨는 약을 먹은 것보다 빨리 속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구취가 나지 않고 변이나 방귀에서 냄새가 거의 나지 않고 변이 뜨는, 4년간의 체험담을 공개 합니다.

구강은 건강하게 치아는 튼튼하게
ORAL MATE®
항균 93% 탈취 80% 음이온 146cc 원적외선 방사 89.7%
GERMANIUM & SELENIUM

ORAL MATE® 기능 효과 93%의 항균력, 80%의 탈취력
- 음이온과 온열을 피부 속 깊이 전달하여 매끄럽고 탄력 있는 잇몸 유지
- 음이온과 원적외선 상호 작용으로 피부 노폐물 방출로 구강 건강 유지
- 세포를 활성화 시키고 면역을 증강 시킨다. 잇몸 질환 예방
- 수중에서 다량의 용존 산소를 발산하며 물 분자를 활성화 하여 청결한 구강
- 각종 균의 정균 작용과 살균, 악취 제거 탁월. 충치 예방과 입냄새 제거
- 잇몸에 붙어 있는 각종 중금속, 유기물질, 독성물질 등을 흡착/분해한다. 깨끗한 치아
- 체감 온도를 5℃ 이상 향상시키며 제반 독소 효과적 제거

위의 내용 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사람이 살고 죽는 데서 벗어나는 길은 이 길밖에는 없다

☞ A17면에서 계속

런 게 붙지 않느니라.” 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복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부처님이 가르치실 때는 그렇게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네 마음을 네가 발견해서 깨달아서 자유스럽게 살라. 일체가 다 공해서 돌아가느니라. 그리고 일체가 너 아님이 없느니라. 일체가 높고 낮음이 없느니라. 그런데 누구한테다가 해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네 마음 가운데도 도량이 있고 부처가 있고 법이 있고 그런데 어디에다가 해 달라고 하느냐.” 하셨습니다. 그런다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물론 농사를 지어서 벼를 다 추려서 까서 키질을 해서 밥을 지어서 먹어야 먹어지는 거지마는, 그거는 한 씨앗에서 그 모든 경계를 거쳐 나오는 것뿐이지 결과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갖다가 붙이면 붙어지고 불이 들어올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시 기도 드리는 것도 그렇고, 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애고가 있고 그래서 기도드리는 것도 있는데, 기도드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 자성이 다 있으니까 그 자성에 의해서 자기 마음이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만이 정신계 50%를 알고 물질계 50%로 나오게 해서 내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다, 학교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했다 이럴 때, ‘생각을 했다’ 할 때는 벌써 나는 시험을 봐야 하고 또는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필요하니까 설계도가 나와야 합니다. 설계도가 나오면 집이 올라갑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마음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마음을 내지 않고 어디에다 해 달라고 자꾸 기도만 한다면, 그러는 것도 마음 내는 거지만, 그거는 쪽박에 물 한 모금 얻어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거는 복을 비는 건데, 이건 내 생각입니다만 복을 좀 얻어 쓸 수야 있겠지마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타개하지는 못합니다. 자기가 명석해질 수도 없고, 물리가 터질 수도 없고, 항상 얻어먹는 노예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런 데를 다니면 “시험 보는 학생들한테도 관하는 법을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 줘라.” 그러는 겁니다. 자기만이 스위치를 올려서 불을 켤 수 있는 거니까요. 자기만이 할 수 있지 누가 해 줄 수 있습니까? 시험을 봐 주는 겁니까, 신(神)이 있어서? 신이 와서 나를 시험을 보게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신(自己神)이,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 나가는 거니까 어리석게 그렇게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입시 때 축원문에 대해서

질문 저는 입시 때 축원문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시 전에 축원을 올리는데, 축원을 스님들께 올리는 거하고요, 또 정성금을 불전함에 넣고 스스로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그거는 스님네들더러 해 달라기보다는, 내가 스님네들더러 해 달라면 의존하는 거죠. ‘저 스님네들이 오죽 잘해 주랴.’ 하고 말입니다. 안 그래요? 한 달을 무슨 축원문을 찾아 가지고 외워 준다거나 이런 거, 내 근본은 아예 팽기치고 스님만을 바라보고 모두 한다고 그런다면 다 헛거예요. 아시겠어요? 물론 다 헛거는 아니겠지만, 한생각이 중요한 거니까.

내가 적든 많든 정성금을 갖다가 놓고 정성을 들일 때 그 한마음으로 모든 스님네들, 큰스님이나 작은 스님이나 또는 자기나 자기 아들이나 모든 일체제불의 마음이나 모든 걸 한데 합친 게 주인공이라 그랬어요. ‘주인공, 너만이 꼭 이룰 수가 있고 침착하게 시험 보게 할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하고 아주 지극하게, 자기 일이니깐 자기가 얼마나 침착하게 잘하겠습니까? 그게 제일이지, 벌써 한 다리 걸러 가면 손등이 돼. (손등을 짚어 보이시며)

그러니까 침착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렇게 정성스러울 수가 없고. 그러니깐 본인들이 하란 얘깁니다, 본인들이. 자기가 농사 지어서 자기가 먹을 수 있고 자기가 물을 퍼 먹으면 샘물을 그냥 풍풍 퍼 먹을 수 있는데, 목마르지 않도록. 아, 그런데 남한테 퍼 달라고 한다면 그거 목마른 걸 기다려야 하고 그거 얼마나 불편해요? 한마음은 본래 돼 있다니깐! 요 묘법을 가르치기가 참 어렵군요.

죽고 사는 것을 벗어나려면

질문 평생을 함께 동고동락하던 저의 친구가 그리 많지도 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떠나가는 그 친구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지만 동서고금을 통해서 생사를 넘어서는 길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완전한 것이 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을 벗어나서 자유스럽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하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이 시대는 뭐든지 공중에서 탐지하고 공중으로 정보를 보내게끔 되어 있는 그런 급박한 시대입니다. 그러니만큼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만 이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참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생사의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너무나 급박한 세월 속에서 수천 년, 수만 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또 이름도 없이 말려서 여기에서 태어나고 저기에서 태어나고, 차원이 낮게 나고 차원이 높게 나고, 항상 몸을 받아 나와서 그렇게 애를 써야만 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부처님 되는 것이 십중팔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자기를 부처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이 부처를 만드는 것이지 허공에서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형상에서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글자를 세워서 갖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이 한도반으로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드릴 뿐입니다. 그 맛을 아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그 맛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도 사람이 살고 죽는 데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길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촛대라고 본다면 바로 불을 댕기는 그 생각은,
우리가 촛대를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 주인공 자체를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
불을 탁 켤 때에 불이 확 가서 붙는다는 말입니다.**

살고 죽는 데서 벗어나야만 하는 일은 우리들한테 너무나 큰일이며 너무나도 타당한 일이라서 게을리 생각하지 말고 부지런히 닦아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또 속임을 받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일 뿐이지 누가 속인다 또 안 속인다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만약에 귀를 꼭꼭 막고서 소리를 듣는다고 할 때는 안 들릴 겁니다. 또 그 귀 막은 것을 떼고서 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다 듣게 됩니다. 역시 눈도 그렇습니다. 일체 만물과 이 세상…, 아니, 보물이 수두룩히 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눈을 감고 볼 때는 보이지 않지만 눈을 뜨고 볼 때는 보이듯이,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그 도리도 모르거니와 우리가 그렇게 진기한 문제를 터득할 수도 없고 내가 나를 발견할 수도 없는 겁니다. 반면에 허망한 물질적인 문제들만 가지고 싸우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삼독을 빼버리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쁜 것이 무엇이냐? 나는 항상 자기 내공에 모든 것을, 일체 들이고 내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이니 그 생활을 바로 자기 내공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법을 믿지 않는다면 놓지를 못하고 또 놓지를 못하면 편안치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활에서 얼마나 쪼달리고 방황하고 그렇게 애를 써야만 합니까? 한 번 와서 머물렀다가 그냥 가는 길에 말입니다. 이 세상에 나와서 잠시 잠깐 머무르는 동안에 이렇게도 한세상 저렇게도 한세상 사는 것이지만 억겁 동안 말리느니, 억겁 동안 그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애를 쓰느니 한세상 머물렀다 가는 이 길에서 우리는 터득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벗어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모두들 물질에만 급급해하지 마시고 물질을 쓰되 하나도 씀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서 느끼셔야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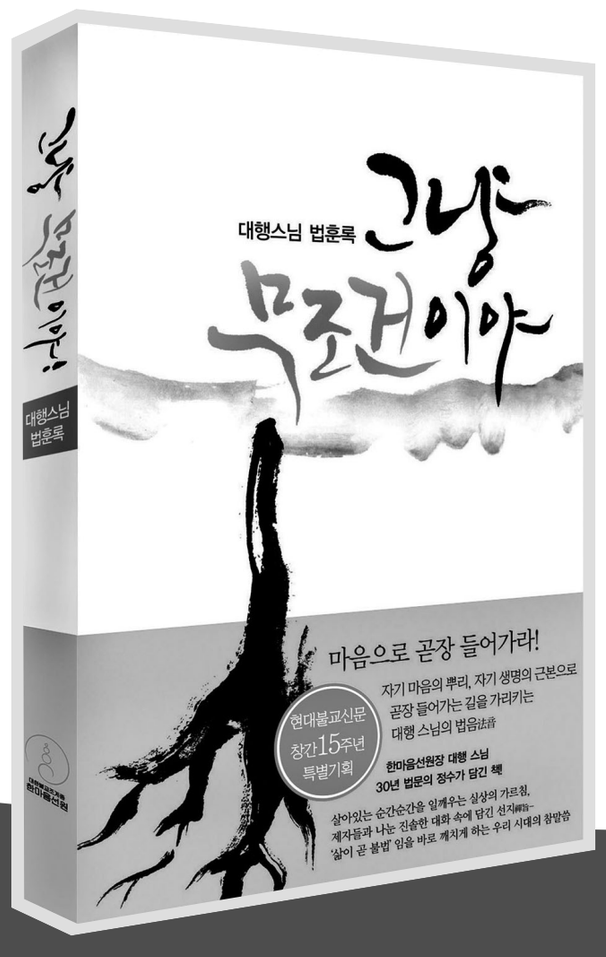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날 때에 누구나가 다, 못생겼든지 잘생겼든지 자기가 형성시켜서 자기가 난 겁니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형성시켜서 났으니까 바깥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지도 말고 바깥에서 구하려고 애쓰지도 말아야 합니다. 바깥의 형상을 보고 남의 일에 참견도 하지 마시고 오로지 나한테 인연이 있어서 닿는 일은 모든 것을 나한테, 그 상대방을 원망하고 상대방한테 말할 게 아니라 바로 내공에다가 믿고 놓고, 거기에서 굴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크나큰 일도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에 ‘이 공부를 해서 무엇을 하나?’ 하지마는 그렇게 섣불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린 생활에서도 하나하나 말을 하지 않고 한생각을 먼저,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한생각이 벌써 건너고 나면은 그 마음이 내 마음과 둘이 아니어서, 내 몸뚱이 움죽거려서 거길 갔을 때에는 이미 마음이 한마음으로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다 같아지니 이 육신도 같이 참 좋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이 법이 일상생활에 쓰여진다는 것을 역력히 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바로 그것이 화두가 되고 그것이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를 만들 수 있는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그 근본을 어디 가서 찾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몸은 법당이 되고 네 마음은 바로 법신이 되는 것이고 마음내기 이전은 바로 부처니라. 그러니 그 삼합(三合)이 공존해서 아들이 아버지로 가면은, 즉 말하자면 생각을 내지 않으면 아버지로 하나가 돼 버리고, 생각을 내면은 아들로 하나가 돼 버리고 그러니 그것은 무슨 연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생각을 내는 것도 생명의 불성이 있으니까 생각을 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바깥에서 자꾸 찾는 그러한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비유해서 한번 말씀드리죠. 줄창 내가 얘기하지만 작년 콩씨를 올해 심어서 콩 싹이 났습니다. 콩 싹이 자라서 콩이 열렸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콩나무는 자기 콩나무에서 콩씨가 열린 거는 생각 안 하고 작년에 심은 그 콩씨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나기 이전을 찾으라니까 그만 바깥에서, 작년에 밭에 심었던 그 콩씨를 찾느라고 헤매고 돕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코를 꽁꽁 막고선 냄새를 맡으려고 해 보십시오. 냄새 맡아지나? 혀를 끊고서 말을 하려고 해 보십시오. 말이 되나? 우리는 마음의 눈을 떠야 마음의 진가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의 진가를 맛보았어도 맛본 그것을 또 안으로 굴려서 체험을 하면서 자꾸자꾸 지혜를 넓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았으면은 깨달았다는 말 할 필요가 없이 안으로 굴리고 굴려서 또 지혜를 넓히고…. 지혜를 넓혀서 또 온 바다를 만드는 거와 같이 내 마음이 온 누리 어느 곳곳에 닿지 않는 데가 없이 됐을 때에, 여러분과 내가 둘이 아니게 끔 됐을 때에 일체 만물, 무정물이나 모든 생물, 물에 있는 고기와 대화를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저런 풀잎하고도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산에 올라갔을 때는 그 풀잎들이 다 말을 해 주고 ‘이것은 당신의 약이 되는 거’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기도 합디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있든 없든 내 성의껏 시주를 하고 정성을 들이면서, 과거의 빚을 갚으면서 미래의 덕을 쌓으면서 우리는 현실의 공부를 하자 이겁니다. 현실의 공부를 할 때 영원한 오늘, 영원한 오늘을 안다면은 영원한 오늘도 벗어날 것입니다. 나 하나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진리가 돌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나 하나도 바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경지까지가 어려운가 하면은 어렵지도 않고, 어렵지 않은가 하면 어렵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이 가다 보면 다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려고 생각하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마음을 여미고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